

ndio



1992
3
성도의 벗

망암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표지 설명 -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프랑스의 파리 스테이크에 소속된 세실 퍼루는 말한다. 그녀는 인도의 빈민들을 돕기 위하여 매년 3개월 씩을 인도에서 보내고 있다. <쪽>의 "세실 퍼루: 인도에서의 사랑과 우정" 참조
노버트 매스트랄리티 표지 사진
리오 젤리스 뒷 표지 사진

- 어린이란 표지 설명 -

마이클 섀펠드 사진

일반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 기념 :

대관장단 환영 인사1

대관장단 메시지:

"만일 네가 충실하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2

세실 퍼루 :

인도에서의 사랑과 우정 티리 크루시8

하늘 문 아예코 세끼16

크리산타 후안 마빈 케이 가드너18

피덴세아 가르시아 데 로하스 :

멕시코 개척자의 일생 아구스틴 로하스 산토스22

어머니로서의 기쁨 패트리아 켈리25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 기념 :

국경을 초월한 자매애34

새롭게 영적인 힘을 보완함 셸린 마이크 산더즈42

정기 특별 기사

방문 교육 메시지 : 상호부조회의 설립48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무엇을 해야 할 시간입니까? 한인상 장로65

교회 및 지역 소식66

어린이란

월포드 우드럼 켈린 리스50

친구가 친구에게 :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52

마르코의 결정 폴라 헌트54

함께 나누는 시간 :

니파이가 배를 지음 버지니아 펄스57

에밀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낸시 앨버츠60

심심풀이 : 한 쌍씩의 동물들62

저희 두 손이 교회에서 경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버라 존스64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터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랭스 디 피네가, 찰스 디타에이, 존 알 래스터,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12권, 제29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2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83 320 Printed in Korea 3/92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 기념

대관장단 환영 인사

1992년 올해에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842년 3월 17일에 상호부조회가 창립되었을 때,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상호부조회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부터 지식과 지혜가 면면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더욱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머리에 축복을 가득 부어 줄 것입니다”(교회 정사, 4: 607)

진정으로 우리의 자매들은 상호부조회의 자선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 전역의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좌우명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이 중요한 노력을 실행할 때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지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상호부조회의 조직과 사명 및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온 세상에 보이는 선행에 대해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 모든 교회 회원이 강화되고 축복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한 여러분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만일 네가 충실하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상

호부조회는 150년 전에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예언자의 아내인 엠마 헤일 스미스 자매가 부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다시 영의 인도를 받아 교리와 성약 25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계시는 교회가 조직된 직후인 1830년 7월 중에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엠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전에 한 여인이 커다란 좌절감에 빠져 저에게 편지를 보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는 일마다 대부분 실패하거나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과 다른 모든 여성들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 아름다운 계시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 계시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교회의 자매님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마는 “선택된 여자”로 불리웠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선택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택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엠마와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알리는 계시를 네게 주리니, 만일 네가 충실하며 내 앞에서 덕있는 길을 걸으면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너는 시온에서 상속을 받으리라.”(2절)

“만일 네가 충실하며 내 앞에서 덕 있는 길을 걸으면”-이 말씀만으로도 매우 긴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원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충실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선의 자질을 충실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성도 자신을 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비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훌륭한 신성한 속성을 충실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충실하십시오.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헐뜯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하며, 또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결점을 찾아내 비난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힘의 근원이신 하늘에 살아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주님은 엠마에게 계속해서 “만일 네가... 덕있는 길을 걸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성도 여성들은 모두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지켜야만 하는 조건으로 엠마 스미스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미덕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미덕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나 미덕의 고결함에 필적할 만한 고결함도 없으며, 것처럼 어울리는 자질과 것처럼 매력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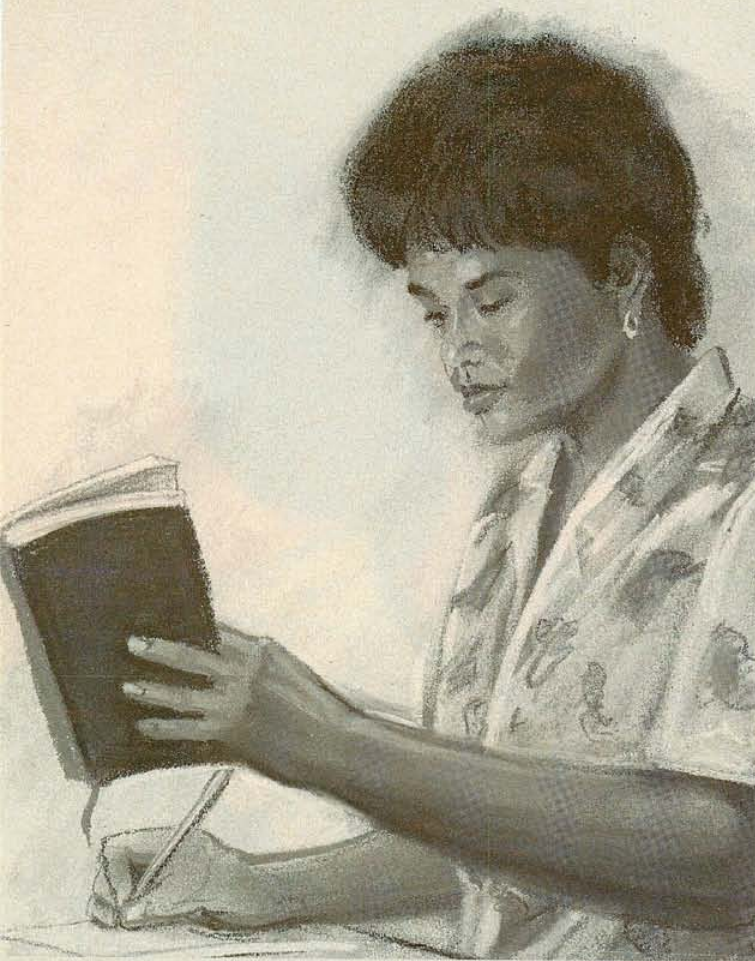
주님이 엠마에게 조건부로 제시하신 계시에서 “네 죄는 사함받았으니, 너는 나의 부름을 받은 선택된 여자니라.”(3절)라고 말씀하신 것은 흥미롭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용서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에 대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 1 : 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지른 심각한 잘못으로 인하여 슬픔을 겪고 있을 사람들에게, 고대와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회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린 비극적인 잘못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엘마서 37 : 47) 하십시오.

엠마는 “선택된 여자”로 불리웠습니다. 이 말씀은 경전에 있는 다른 말로 부르면 “주님의 선택된 그릇”(모로나이서 7 : 31)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택된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엠마에게 “네가 보지 못한 일로 불평하지 말라.”(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가 번역하고 있던 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엠마는 당시 요셉의 서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에게 금판을 보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엠마에게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토하지 말라. 나의 영원한 지체로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흠을 찾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에게 “네게 주어지지 않은 일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요셉이 금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규칙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신권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규칙을 정한



엠마는 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엠마는 복음을 공부해야 했으며,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과제는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엠마는 요셉의 손으로 “경전의 말씀을 풀이하며, 나의 영이 주는 것에 좇아서 교회 회원을 간곡히 권면”(7절)하도록 성임(성별)되어야 했습니다.

엠마는 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엠마에게 주어지는 이 부름에 관하여 “너는 성신을 받을 것이요, 많은 것을 기록하며 배울 시간이 있게 되리라.”(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는 복음을 공부해야 했으며,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계속해서 주어진 계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엠마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헌신해야 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글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 모든 여성들에게 일지를 쓰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종이 위에 표현하십시오. 글을 쓰는 것은 훌륭한 훈련이 되며, 매우 교육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글로 남겨 놓은 경험과 생각이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및 그 밖의 사람에게는 물론 후세에까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엠마에게 “나의 영이 주는 것에 좇아서 교회 회원을 간곡히 권면”해야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책임이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은 배우고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경전을 해석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세상 일을 제쳐 놓고 그보다 나은 일을 간구하라.”(1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에게 살 집이나 음식 및 의복에 관하여 전혀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엠마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엠마에게 의로움과 선함, 순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한 문제 및 영원에 관한 것 등 좀더 높은 수준의 삶에 관해 생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엠마에게 교회를 위하여 찬송가를 선정하도록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정하신 것이며, 주님만이 이 규칙을 변경시킬 수 있으십니다.

엠마는 이 계시를 통해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 곧 네 남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로써 위로하는 일”(5절)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참으로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엠마는 그의 아내이자 동반자이고 그가 고통받을 때 힘이 되어야 했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내가 되시는 모든 여성들이 가정에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음을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잠언 15:1) 주님께서 이 계시를 통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제게는 흥미롭습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가정에 몹시 해를 끼치고 가정을 크게 침식시키며 원망과 상심과 눈물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 분쟁과 마찰과 고통이 생겨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하도록 참으로 훌륭하게 권고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엠마에게 교회를 위하여 찬송가를 선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 25 : 12)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

지시하셨습니다. 이 지시가 교회가 조직된 지 3개월 만에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부름과 관련하여 주님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12절)

주님은 계속해서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라.”(13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기쁜 것이며,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운 일과 근심스러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폭풍과 구름에 덮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여성들도 많이 포함됩니다. 행복한 마음가짐과 낙천적인 태도를 기르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며 여러분이 가슴 속에 지니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함과 신성한 것들에 관한 간증을 통해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을 지니며 교만을 조심하라.”(14절) 이 말씀도 같은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관을 쓰게 되리라.”(15절) 이 약속은 주님께서 엠마 헤일 스미스에게 주신 것이지만,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행복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오게 됩니다. 말일성도 여성들은 계명을 어길 경우에만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여성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딸에게 주어지는 의와 영원한 진리의 왕관인 여왕의 왕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에도 포함시켜 주님은 “이는 모든 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라.”(1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계시를 통해 주신 권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162년 전에 주어진 이 위대한 계시를 지키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계시는 그것이 주어졌던 당시와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계시를 읽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매우 감사하게 여기는 어린 소녀 여러분과 훌륭한 미래를 꿈꾸는 아름다운 청년 여러분 및 아직 미혼으로서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숙녀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잊고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신 어머니 여러분 및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시거나 이혼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노인이 되신 아름다운 여성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영원한 복음의 빛을 축복으로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의로운 소망과 마음의 평화와 기쁜 날들이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이 1830년에 엠마 스미스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은 모든 자매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2. 어떠한 여성도 자신을 천하거나 또는 하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비하시킬 수는 없다.
3. 교회에 속한 자매들은 모두 “선택된 여자”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선택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롭게 해주실 것이다.
4. 주님은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책임을 주셨다. 교회의 모든 여성들은 배우고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경전을 해석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5. 행복한 마음 가짐과 낙천적인 태도를 기른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며 가슴 속에 지니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함과 신성한 것들에 관한 간증을 통해 기쁨을 느끼도록 한다.

세실 퍼루

인도에서의 사랑과 우정

티리 크루시

프랑스 파리 스테이크, 세르지 폰타즈 지부의 회원인 세실 퍼루 자매는 20년 이상이나 디오르, 가르맹, 리찌 같은 파리에서 가장 저명한 고급 패션 디자이너들을 위해 일해 오면서 세계적인 부유층 여성들을 위해 의상을 디자인하고 만들었다.

그러나 1986년부터 이 친절하고 정열적인 여성은 그 좋은 직업을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퍼루 자매는 해마다 3개월씩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 봉사한다. 그녀는 인정 많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캘커타의 가난한 교외와 벵갈의 고아원에서 일하면서 프랑스 친구들의 기부금과 함께 그녀의 저금 전부를 가난한 어린이를 구제하는 데 바치고 있다.

“그곳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실은 1974년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게 되었다. 세실 일행은 우연히 템플 스퀘어를 관광하였으며 그곳에서 태버내클 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참으로 매우 감동적인 체험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후에 세실은 함께 여행한 사람들에게 태버내클 합창단의 공연에 참석했던 것이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온 지 몇 개월 후에 선교사들이 방문하였다. 세실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중 한 명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왔다고 하는 말에 여행하던 당시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에게 “그 합창단이 있는 교회”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선교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세실은 그들을 들어오게 하여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1975년에 침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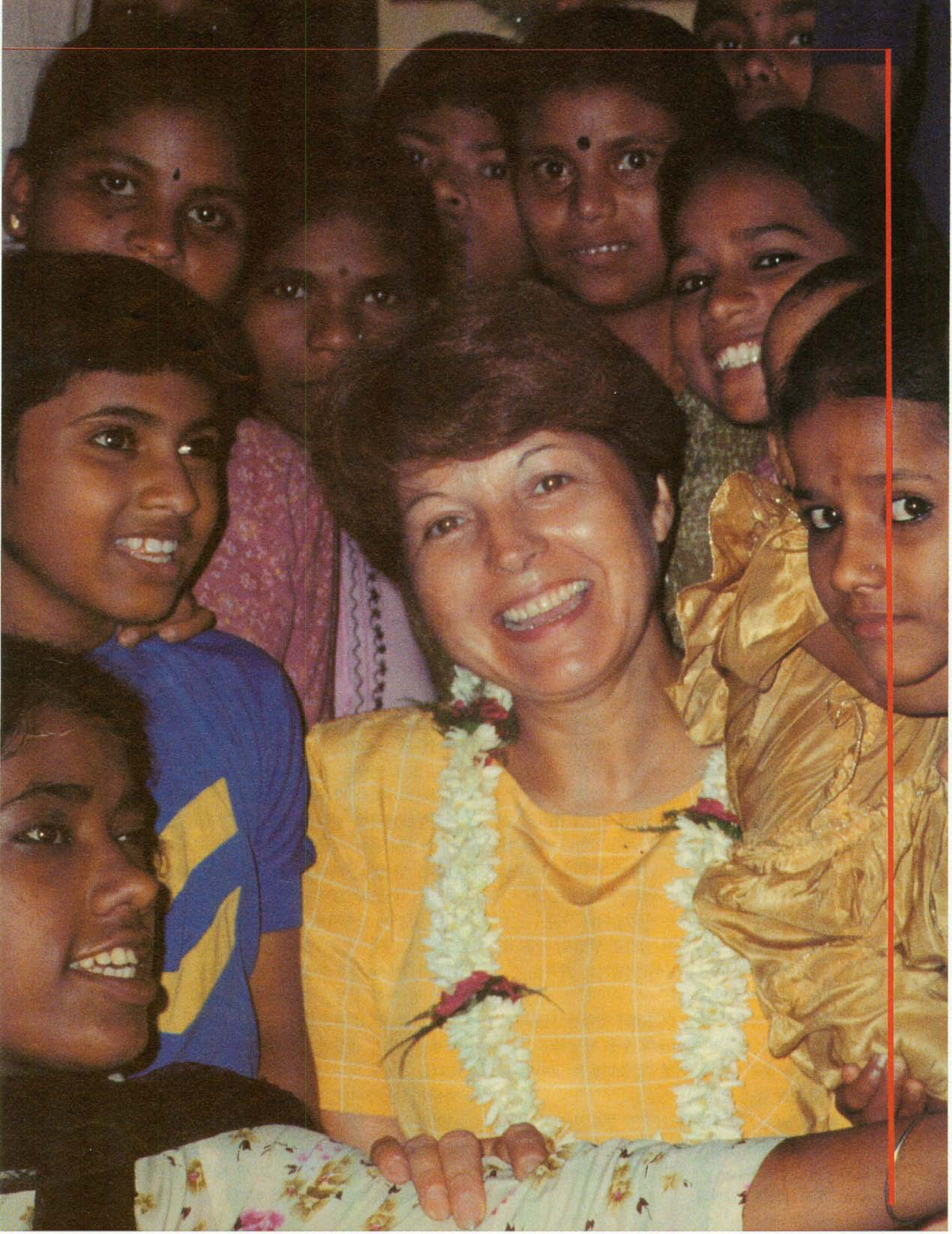
십 일 년 후인 1986년 7월에 세실은 처음으로 인도 여행을 떠났다. “저는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휴가 동안 캘커타로 갔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저는 구급 요원 자격증과 약품 가방을 갖춰 가지고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 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인도의 현실을 설명한 글을 읽고 그에 관한 강연을 들은 것이 그곳으로 가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곳에 가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말이다.

세실은 대부분 캘커타의 노인과 유아들 및 장애자 어린이들 가운데서 할 일을 찾았다. “그곳에서 무척 분주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과 시트를 삶고 빨아야 했으며 음식을 준비하여 밤에 보호원과 구빈원에서 환자들을 먹이고 약물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씻겨야 했으며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정과 애정을 베풀어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할 아기들도 있었고 너무 약해서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여야 할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테레사 수녀의 자선 사업을 하는 수녀들과 함께 일하였고 다음에는 다른 그룹과 함께 일하였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라고 세실은 말한다. “인도에서 한 일은 사랑과 우정에서 우리나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 주셨군요!”

인도에 처음 가 있는 동안 세실은 또한 대부분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노인 일백 명이 수용된 집을





한때 굶주리고 병들었던 다알 가르쳤다. 이제는 식사
 애쉬럼 고아원(왼쪽)의 시간에 줄을 지어
 어린이들은 이제 퍼루 기다리면(오른쪽) 아채와
 자매의 노력을 통해 더 생선과 계란이 나온다. 퍼루
 건강하고 향상된 생활을 자매가 애쉬럼의 친구 중
 누리고 있다. 그녀는 물자 하나인 밀리와 함께 잠시
 공급 외에도 자립의 원리를 쉬고 있다.(오른쪽 끝)

알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겨우 카톨릭 선교사 두 명 뿐이었는데 한 명은 사흘 동안이나 앓고 있었어요. 저와 다른 자원 봉사자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했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두 선교사 중의 한 분인 테레시나 수녀가 제게 키스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 주셨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실은 후에 캘커타 교외인 필카나에서 몹시 더운 날씨와 우기에 닳치는 홍수를 겪었으며, 또한 그곳 빈민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곳 어린이들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처럼 웃고 즐길 줄을 알고 있으니깐요.”

세실은 또한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인도인들이 자립하게 되도록 돕는 일을 이십 년 동안이나 해온 어떤 유럽인 부부를 만났다. 세실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들은 인도인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저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14살에서 17살까지의 소녀들이 납골포 날염을 배울 수 있는 훈련 센터를 세워서 그들이 언젠가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실은 또한 자신의 패션 디자이너 경험을 이용하여 소녀들이 옷본을 만들어 자신들의 옷을 재단하고 바느질하도록 훈련시켰다. 이제 그 소녀들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 옷을 만든다.

이밖에도 세실은 빈민들을 위하여 무료 식당과 무료 점진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곳에서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라고 세실은 말한다.

바니폴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세실은 인도어로 애쉬럼이라고 부르는 종교적인 은신처를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아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각 애쉬럼에는 5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약 일백 명 가량씩 있었다. 이 중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질병과 영양 실조와 호랑이의 습격 때문에 고아가 되었다. 이 어린이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애쉬럼으로 오게 된다. 그 밖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피부병에 걸려 있었으며 열병과 장내 문제와(심각한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구루병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있어야 내일도 먹을 쌀이 있게 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게 된다. 현재 뱅갈에는 8개의 애쉬럼이 있는데 그중 바니폴의 다알 애쉬럼(“행복한 집”)은 정글 한 가운데 있다.

“이 애쉬럼이 제게는 정말 그리운 곳이에요.”라고 세실은 말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제가 인도인의 애정을 깨달았던 곳이니깐요. 그곳에 있으면 마치 집에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저는 어린이들에게 놀며 노래하고 웃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제게 마룻바닥에서 자고 손을 손가락처럼 사용하여 식사하는 것과 집 안과 신성한 장소에서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과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인 사랑을 느끼도록 가르쳐 주었죠.”

어린이들과 세실의 유대감은 매우 빨리 커져서 그들은 그녀를 “세실 디디”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큰 누이 세실이라는 뜻이다. 첫번째 체류 기간 동안 세실은 파라티푸스로 앓아 누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린 인도 친구들은 자신들이 마치 오빠와 언니인 것처럼 세실을 간호하고 보살폈다. 그들은 그 병 때문에 일어나는 경련이 누그러지도록 그녀의 다리와 팔을 안마해 주었다.



세실이 1986년에 바니폴을 처음 방문하기 몇 달 전에 지역 복지 조직에서 닭장을 짓고 120마리의 암탉을 길렀는데, 그것을 통해 8곳의 애쉬룸에 있는 800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주 계란 한 개씩을 공급해 주었다. 그 계란은 오로지 쌀과 정글에서 파낸 뿌리로만 만들어진 일상 식사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불행하게도 세실이 도착하였을 때 그 닭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한 방울의 물”

“프랑스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바니폴로 돌아간다면 닭장을 지어 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왜냐구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상황이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으므로 저는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돕기 위해 다시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세실이 파라티푸스에서 회복하는 데는 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저는 좀 나아졌다고 느끼자마자 일을 다시 시작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충분하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저는 가족과 친구와 다른 회원들에게 제 계획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이전에 서로 얘기를 나눠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 아이들을 위한 음식과 닭과 그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돈이 든 봉투를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뢰와 사랑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실은 스테이크 부장인 다니엘 피쇼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님은 제게

스테이크의 회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니폴에 대한 제 계획을 이야기해 보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사흘 후에 저는 스테이크에서 보내 준 한 장의 수표를 받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스테이크에서 벌인 ‘한 방울의 물’ 운동으로 모아진 돈, 즉 세상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스테이크에서 행한 금식으로 모아진 자발적인 기금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그 돈을 닭장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곧 이어 9월에 세실은 바니폴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녀는 알을 낳고 있는 120마리의 암탉과 5달 후면 알을 낳기 시작할 닭 120마리, 그리고 닭장을 짓기 위한 충분한 건축 재료와 그 닭들을 일년 동안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곡식과 30마리의 알을 낳고 있는 오리들 구입했다. 오리 똥은 근처 연못의 물고기 먹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애쉬룸에 있는 아이들을 6달 동안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분유를 샀다.

세실은 프랑스의 가금 전문가에게 닭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조언을 요청하였다.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듯이 바니폴의 암탉들은 현재 단단한 껍질의 계란을 낳아 주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긴급한 기아 구조 활동을 통해 세실은 자립의 원리를 가르쳤다.

“이제 그 어린이들은 닭장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았어요. 아이들은 알을 모으고 그 수를 세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쉬룸에는 성인이 2명 뿐이며 백 명의 어린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요리사라고는 장애인 요리사 세 명 뿐이기 때문이죠.”



바니풀의 식사 시간(왼쪽)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재배한 야채가 사용된다. 어린이들은 저녁 식사로 밥과 카레 외에도 매주 일요일에 계란을 한 개씩 받는다.(오른쪽) 그

계란은 파리에 있는 세실 퍼루 자매의 고향 스테이크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그녀가 구입한 닭들이 낳아 주는 것이다. 또한 세실은 오리와 곡식과 닭장을 지을 건축 재료도 구입하였다.



자립의 시작

첫번째 방문 후 세실은 해마다 두 번씩 바니풀로 돌아갔다. 그녀는 주로 파리와 스트라스버그에 사는 친구들로부터 모은 기금과 함께 자신이 저금했던 돈을 사용하여 복지 사업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때로는 그녀 혼자서 일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세바 상사미티와 같은 지역 조직의 도움을 받거나 바라야를 돕기 위해 부유한 생활을 포기한 지역의 한 브라만인 소리트 쿠마르다와,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살기로 마음먹은 카톨릭 사제, 가스통 그란장 같은 자원 봉사자와 함께 일했다. 선의로 제공된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세실은 바니풀로 돌아올 때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꾸지 않았던 땅들이 애쉬림의 야채밭으로 바뀌어졌다. 처음에 아이들은 아무런 연장도 없어서 막대기로 땅을 파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삽과 곡괭이가 얼마간 있다. 또한 근처의 연못에는 물고기들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어장이라고 부르기에 아직 이르지만 현재 한 해에 240킬로그램의 물고기들을 잡고 있다. 어린이들은 이제 정구적으로 야채를 먹고 가끔씩 물고기도 먹는다.

그 마을 주민들이 샘을 파자 파리 워드의 청소년들은 그것을 위한 펌프를 살 돈을 모았다. 1,5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외부에서 온 환자도 받는 의료원이 있는 그 마을은 이제 식수를 받을 두 번째 물꼭지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물을 받으러 늘어난 줄이 짧아지게 되었다. 소리트 쿠마르 다와 마을 사람들이 지은 벨라리의 그 의료원은 1986년 9월에 문을 연 이래로 매달 3,000명 썩의 환자들을 치료해 준다. 25명의 영양

부족에 걸린 유아들을 위해 주간 보육원이 세워졌다. 모든 어머니들은 간호원에게서 검진을 받고 아기를 위해 매주 250그램의 분유를 받는다. 어린 생명들이 구조되는 것이다.

벨라리의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학교를 지었다. 그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벽돌을 날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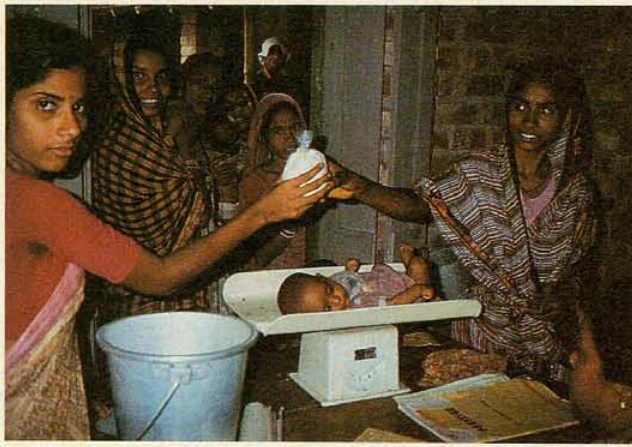
그 사업과 건물들, 교사 및 요리사들 모두가 퍼루 자매가 모은 기금으로 충당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복지 사업을 벌인 결과로써 몇몇 마을 사람들이 정기적인 수입을 갖게 되었다.

1988년 11월에 가장 가난한 가구 중 서른 다섯이 닭을 기르는 것을 배우도록 뽑혔다. 각 가족들은 두 마리의 암탉과 한 마리의 수탉들을 받았다. 금방이라도 잡아먹고 싶은 충동을 잘 참아냈던 그 가족들은 쌀과 약과 책 및 의복을 사기 위해 팔 수 있는 30마리 이상의 암탉을 갖게 되었다. 자립의 시작이었다.

네팔의 집없는 아이들을 도움

1989년에 친구인 프랑소와 라보드 신부는 퍼루 자매에게 네팔의 네팔간지에 살고 있는 47명의 고아들을 위해 집과 학교와 시료원과 농장을 세우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고아들 가운데 21명은 장님이기도 했다. 세실은 벵갈에서 네팔로 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았다. 파리로 돌아간 그녀는 필요한 기금을 모으려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때 세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지했던 것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세실에게 그녀의 집을 후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
준 벨라리 주간 보육원에서
각 어머니들은 매주 검진을
받고 아기를 위한 250그램의
분유를 받는다.(왼쪽)
2,000장의 납결포 크리스마스
카드 주문은 필카냐에 있는
훈련원의 어린 소녀들에게

수입을 안겨 주었다.(오른쪽)
퍼루 자매는 달수증과
빈혈증을 보이는 어린이를
데려와서 “제발 제 손녀를
살려 주세요!”라고 애원하던
어떤 여인을 만났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값으로 사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세실의 집은 파리 중심지에서 가까운 교외에 이상적으로 위치해 있었다. 세실은 즉시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좀더 싼 집을 사기로 하고 풍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마련된 돈을 갖고 네팔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1990년에 세실은 그곳에 집과 학교를 세웠으며 현재는 시료원과 농장을 짓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

세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많이 있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들이 충분히 먹고 학교에 가며 더 나은 물을 공급받고 질병의 확장을 막을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것 등이다. 세실은 그것을 꿈꾸고 바란다. 그렇게 적은 돈과 몇 안되는 손길로 그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더 큰 자원으로는 어떤 정도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을 키움

퍼루 자매의 일은 일시적인 복지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단 충분한 음식과 의복을 갖기만 하면 복음에 응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세실은 벵갈어를 배우고 있으며, 교회에 대해 질문하는 벵갈 사람들에게 물문경에서 발췌한 내용의 복사물을 주어 왔다.

하지만 세실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그녀의 모범이다. 파리 스테이크의 회원이며 전 지역 대표였던 크리스티안 어브러는 이렇게 말한다. “퍼루 자매님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를 좇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인도 법률에 순응하고 인도의 지역 조직을 통해 일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판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실은 벵갈의 비회원 친구들이 지역 당국에 “세실은 부정직한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이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편이 되어 그녀를 지켜 준 그 날을 회상하면서 감상에 젖는다.

“주님은 자주 저에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라고 세실은 간증한다. “한 번은 켈커타의 세관원들이 제가 다른 자원 봉사자들이 국내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허락된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약품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적이 있으며, 또 어떤 때에는 ‘만원’인 비행기의 맨 마지막 자리를 얻어 타기도 했고, 별로 열심히 도와 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관리들에게서 필요한 관허를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그분의 뜻을 하시기 전에 제가 제 뜻을 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세실은 매번 파리를 떠나 벵갈로 돌아가기 전에 인도에 있는 기간 동안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신권 축복을 받는다.

소망은 성장의 시작임

물론 세실은 필요 사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안다. 수많은 학교, 펌프, 보육원, 가금 축사, 의료원, 공중 화장실, 위생학 교사와 현재의 고통을 덜어 주고 보다 인간다운 미래를 가능케 해주는 위생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실은 “이런 것은 거의 없지만 벌써 많은 성취를 한 셈이에요”라고 거듭 말한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다. 소망은 성장의 시작이다. 바니풀과 벨라리에 있는 세실의 친구들은 상황이 바뀌어져서 기아와 질병의 순환기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용기를 갖고 스스로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세실이 스테이크 청녀 회장과 와드 초등학교와 상호부조회의 회장으로 봉사했던 파리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그 사업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1988년과 1990년에 필카나의 훈련원에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그림이 그려진 납결포로 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문함으로써 그 소녀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다. 또한 세실의 친구들은 필카나에서 만든 스카프와 머리 수건과 화려한 납결포의 벽걸이를 구입하고 있다.

파리 스테이크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은 병갈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장난감을 보냈으며, 파리의 청소년들은 그 애쉬럼의 어린이들과 편지를 주고 받는다.

다니엘 피쇼 파리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것이 회원들, 특히 청소년들을 가르칠 좋은 기회임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더 잘 깨닫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아는 기회를 갖게 해준 퍼루 자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세실은 여행을 끝내고 올 때마다 파리와 스트라스버그의 친구들에게 그 사업과 기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하며, 그들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멀리 떨어진 세실의 한 구석진 곳의 생활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세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 어린이들(밀리, 라노, 투루, 시마, 보우라, 아오우티와 기타 다른 많은 아이들)과 또 그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수케쉬, 손다, 루시, 미노티 같은)의 사진을 보면서 이들은 추상적인 자선 사업이 동정심과 형제애에

대한 눈에 띄는 본보기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제발 제 손녀를 살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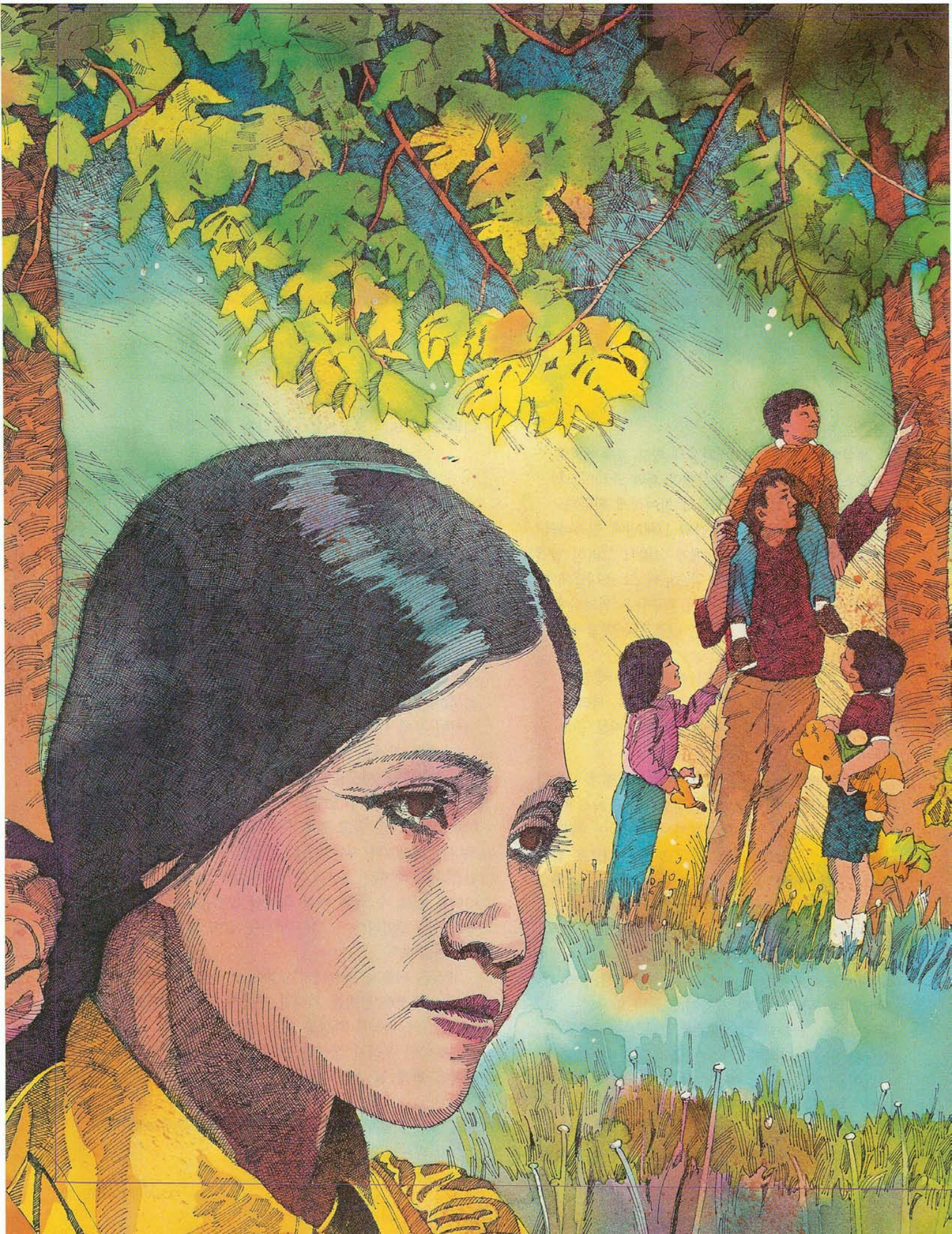
세실에게 그 사업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그녀는 탈수증과 빈혈증을 보이는 어린이를 데려와서 “제발 제 손녀를 살려 주세요!”라고 애원하던 어떤 여인을 만났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실은 어른들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바니폴의 어린 힌두교 신자들을 종종 회상한다. 그녀는 그렇게 가난한 어린이들에게서 목격한 영적인 부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들 각자는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으며 멀거나 가까운 이웃들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세실은 말한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것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봉사는 끝이 없는 사랑의 고리입니다.”

세실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는 특정한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해요. 만약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티리 크루시 형제는 교회 번역사이며 프랑스 파리 스테이크의 토르시 와드 회원이다.



하늘 문

야에코 세끼

나는 가족과 함께 북 알프스의 산맥들로 둘러싸인 알프스 일본 국립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 저기를 뛰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좀 피곤하였으므로 나무 아래에 누워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짓눌러 오는 걱정을 견디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희는 완전한 십일조를 바쳐 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언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였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다. 그런 다음 함께 웃으면서 놀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그 장면은 내게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비쳐졌다. 갑자기 영이 내게 나의 축복이 풍족한 것이며 가족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축복임을 증거해 주었다.

열 일곱 살에 침례받은 이래로 나는 사랑으로 채워진 가족을 갖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지녀 왔다. 항상 원하던 대로 상냥한 남편과 사랑스런 가족들을 얻었으므로 나는 이 훌륭한 보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정과 가족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계획해 오신 방법입니다.”(연차대회, 1974년 10월) 나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목표를 마음에 새겨 두었다.

“엄마, 울고 있어요?”라고 세 살된 아들이 종종 내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해 준다. “그래, 아가야. 엄마는 아주 훌륭한 가족을 가져서 그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자꾸나.” *

크리산타 후안



크리산타 후안은 가족이나 고향인 필리핀의 마안토크를 떠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몇몇 친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모 일자리를 신청해 놓고 크리산타에게도 만약 일자리를 얻는다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권했다. 25살의 크리산타는 자신은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신청을 하였다. 한 달 후에 그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에게 고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왕자의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을 때 크리산타는 여전히 그곳엘 가야할 지 어떻게 해야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그 비서는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비서는 “왕족을 섬기는 일은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 필리핀에 있는 것이 행복해요.”라고 크리산타는 말했다.

“어쨌서요? 여기의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공장 근로자예요.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해요.”

“더 높은 보수를 받고 싶지 않아요?”

크리산타는 “아뇨, 더 이상의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를 만족해요.”라고 대답했다.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두려움도 더 커졌다. “왕자를 위해 일하도록 그들이 필리핀의 어떤 낯선 소녀를 고용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비서는 왕자가 그녀를 선택하였으며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미 크리산타의 여권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압박감을 많이 느끼면서 마침내 그녀는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녀는 곧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두려움도 더 커졌다. 그녀는 무서웠으며 그 남자의 말이 모두 농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왕자를 위해 일하도록 그들이 필리핀의 어떤 낯선 소녀를 고용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속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궁궐 같은 왕자의 저택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크게 놀랐다. 크리산타는 그렇게 굉장한 부자는 꿈도 꾸어 본 적이 없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19살의 아름다운 왕자비(왕자의 아내 중 한 명)와 그녀의 두 살된 딸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녀가 딸을 아이였다.

그 아이는 아라비아 말로만 이야기하였다. “저는 아라비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의 딸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라고 왕자비에게 물었다.

왕자비는 “아라비아어를 배워야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대학을 졸업했던 크리산타는 가정 교사와 함께 아라비아 말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석 달 이내에 그녀는 아라비아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왕자는 그녀에게 그의 딸을 위해 아라비아 말과 영어를 가르치도록 요청하였다. 이젠 그녀가 유모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

교사로서도 일하기 때문에 왕자는 그녀의 봉급을 올려 주었다.

오래지 않아 크리산타는 새로운 생활 양식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저는 공주처럼 느껴졌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저는 그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 말고는 빨래나 다림질이나 요리 또는 그 외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수가 호화로운 자가용으로 그녀를 태우고 다녔다. 그녀는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며 종종 긴 식탁에서 왕자와 그의 아내들과 자녀, 그리고 다른 유모들과 함께 식사하였다. 그녀는 거의 매일 왕자와 함께 그 딸과 그녀의 숙달 정도와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크리산타는 좋은 보수를 받았다. 그녀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 주었으며 그들은 그것으로 필리핀에서의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배웠다. 오래지 않아 크리산타는 새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과 기타 사치스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저는 원하는 것은 모두 구입했으며, 그것도 싸구려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3년 후에 크리산타는 한 달간의 휴가를 얻어 필리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모와 두 여동생이 교회 회원이 된 것을 알았으며 그녀도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네 번의 토론을 마친 후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저의 화려한 생활 때문에 저는 영적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그녀는 물론경과 교회 소책자를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져 가기로 했다.

크리산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재입국할 때 공항 관리들은 그녀의 짐 가방 속에서 물론경을 발견하고서 국내로 그 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그들에게 제 여권에 붙여진 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의 일종의 통과증이었습니다.” 크리산타의 말이다. 관리들은 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자는 크리산타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였다.

“그 책이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하오?”라고 그는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왕자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날 밤에 크리산타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선교사들이 물론경의 어떤 구절에 표시를 한 것을 관심을 갖고 보았으며, 특히 모로나에서 10장 4~5절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저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라는 영감을 느꼈으며 매일 시간을 내서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게 실제로 영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제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고 그 때에 제 인생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크리산타는 흥분하여 고향에 편지를 보내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간증이 자란 것을 말해 주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그들의 가정의 밤이 녹음되고 찬송가와 간증이 들어 있는 테이프를 보내 주었다. 크리산타는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간증에 감동되었다. “저는 부모님의 간증을 듣고 영으로 충만해져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녀의 말이다.

1년도 못되어 그녀는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왕자비는 크리산타가 최근에 휴가를 갔다 왔으며 또 그녀가 3년을 더 있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녀에게 휴가를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왕자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왕자는 일주일 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면서 휴가를 허락해 주었다. 크리산타는 돌아오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옷 4벌만 가지고 왔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던 동안 구입한 나머지 새 옷들과 기타 다른 모든 소유물은 남겨 두어야 했다.

크리산타는 필리핀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선교사들과 만났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지만 물론경을 읽으면서 다르게 느꼈다고 얘기하였어요.”

선교사들은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그녀에게 기도해 보도록 권하였다. “저는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을 느꼈으며 그다음엔 울기 시작해서 한동안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를

생각하였으며 물론경을 읽고부터 알아 왔던 그 행복감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과 제가 그분께 중요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선교사들에게 즉시 침례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안됩니다, 자매님. 토론을 마저 다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며칠 후인 1988년 4월 9일에 침례를 받았다.

크리산타는 그 순간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사치스런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저는 여기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오래 머물수록 저는 더욱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생 뿐만 아니라 내세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고 또한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화려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전에 제가 가졌던 어떤 것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왕자가 전화를 걸어와 아이가 그녀를 기다리기 때문에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복음 선교사를 준비하는 동안 크리스산타(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그녀는 이 사진에서 준비 일에 다른 스테이크 선교사와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다.

그녀는 “제 휴가를 연장하고 싶습니다.”라고 그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아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라고 왕자가 말했다.

크리스산타는 “저도 아이가 정말 그리워요. 그리고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어떤 일이죠?” 왕자가 물었다.

그러자 크리스산타는 그에게 교회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싶으며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녀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신하자 왕자는 “원한다면 이 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올 수 있소. 그러나 공주는 당신을 기다릴 수 없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한 달 후에 크리스산타는 왕자가 다른 유모를 고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새 유모와 크리스산타는 여러 번의 편지 왕래를 통해 그 아이에 대한 정보와 통찰력을 나누었다. “그

어린 공주님은 언제나 제가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물었대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크리스산타는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회장으로, 그리고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그녀는 선교 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일하였다. 크리스산타는 “제가 이전에 썼던 돈을 모두 가져 올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전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었죠. 제가 미쳤었지요. 정말 미쳤었지요.”라고 말한다.

크리스산타는 침례받은 지 꼭 일 년 후 마닐라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두 달 후인 1990년 6월에 선교사 부름을 받고 현재 모국인 필리핀에서 봉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주 그녀에게 선교 사업을 위해 왜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였는지 묻는다고 한다. 그럴 때면 “저는 그들에게 제가 이전보다 더욱 행복하다고 말해 줍니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 일이 그렇게도

좋습니까?”라고 물으면,

크리스산타는 그들에게 “네, 그렇게 좋은 것이예요.”라고 대답한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그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크리스산타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죠.”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하지는 못한다. “저는 이미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였고 원했던 것이라곤 좋아하는 것을 모두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제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보다 더욱 값지고 가치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삶을 원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싶어요. 그분께 사랑받고 싶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

멕시코 개척자의 인생

아구스틴 로하스 산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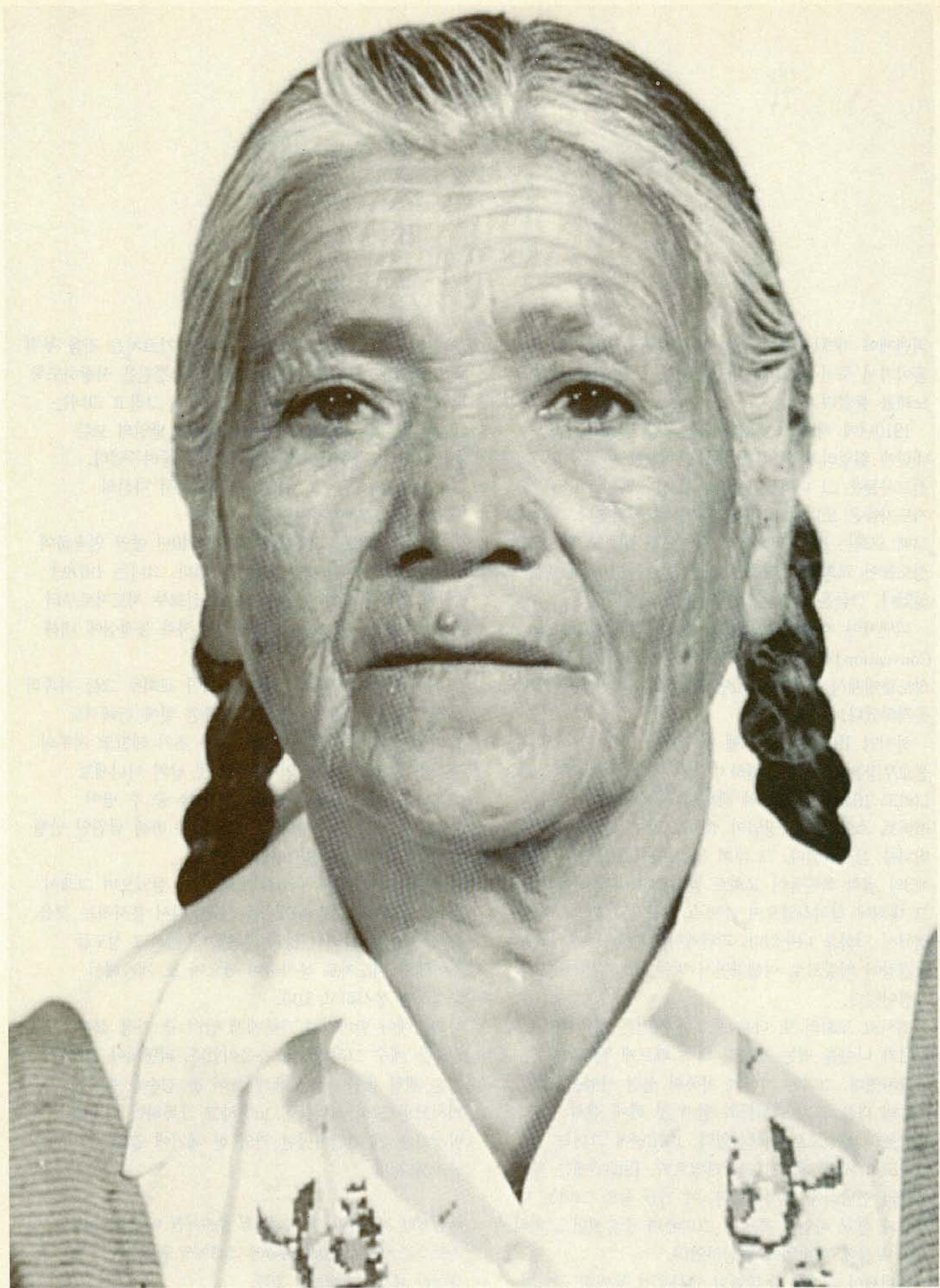
1989년 6월 25일, 2,500명이 넘는 멕시코의 말일성도들은 멕시코 테칼코 스테이크의 탄생을 위해 멕시코 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모였다. 그것은 그 나라에서 조직된 백번째 스테이크였다. 새로운 스테이크의 회원 가운데 멕시코에서 가장 나이든 교회 회원인 106세의 피덴세아 가르시아 데 로하스가 있었다. 멕시코의 교회는 이미 피덴세아가 회원이었던 88년 동안 여러 중요한 시점을 지나왔다.

한 달 반 후에 피덴세아 자매가 사망하였을 때 펠리페 에르난데스 루이스 테칼코 스테이크 부장은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멕시코 개척자의 한 분의 죽음을 맞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하였다.

피덴세아 자매는 1889년과 1901년 사이의 언제부터가 말일성도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그 기간 동안 교회의 멕시코 선교부는 폐쇄되었다. 따라서 멕시코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본부의 지도를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많은 단위 조직들이 표준적인 교리와 실무에서 빛나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때까지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피덴세아 자매와 그녀의 가족들은 테칼코 지부에 참석하였다.

선교부가 재개된 후 암몬 엠 테니 선교부장이 지부를 재건하기 위해 1901년에 테칼코로 왔을 때 지부를 이끌고 있던 후리안 로하스는 처음에는 관리권을 넘겨 주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로하스 형제는 마침내 동의하였으며 테니 부장은 8월 18일에 그와 다른 75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한 달 후에 테니 부장은 피덴세아와 그녀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날 이후로 피덴세아 자매는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그녀는 테칼코 지부가 다시 교회 본부와 연결이 된 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고 회상하였다. 곧 첫번째 복음 선교사가 도착하였으며 피덴세아의 부모는 그들의 집에 그 선교사들이 살도록 여분의 방을 만들어 주었다. 피덴세아 자매는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말일성도 예배당을 짓기 위한 건물 부지를 구입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회원과 선교사들 중의 하나였다. 피덴세아 자매는 또한 근처의 오슘바에 있는 선교사들의 숙박과 의복 및 음식 문제를 도와 주었으며, 멕시코의 선교부장 집과 선교 본부에서 일하였다. 그녀가 그곳에서 일하던 동안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녀에게 스페인어와 영어로 찬송가를 부르도록 가르쳐 주었다.



피덴세아 자매는 후에 전설적인 테칼코 합창단에 들어가서 죽기 바로 몇 년 전까지 그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1910년에 멕시코는 1930년대를 단속적으로 이끈 내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1913년 8월에 미국인 선교사들은 그 나라를 떠나야 했으며 멕시코의 교회 지도자들은 또다시 자기들끼리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잘 조직되어져 있었으며 내란도 멕시코의 성도들이 교회를 관리하는 것을 심각하게 저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4년 이상을 그렇게 보냈다.

피덴세아 자매는 1936년에 제3의 집회(the Third Convention)라고 알려진 다수의 회원 그룹이 멕시코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멕시코 교회의 분열까지도 목격하였다.

하지만 1942년에 아르웰 엘 피어스 신임 멕시코 선교부장은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46년에 교회의 제8대 대관장이었던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 멕시코 시에서 다시 통합된 대회를 감리하셨다. 그 대회 기간 중에 1,200명 이상의 제3의 집회 회원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피덴세아 자매는 그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스미스 대관장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피덴세아 자매의 집은 스미스 대관장이 테칼코로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첫번째 가정이었다.

멕시코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피덴세아 자매가 나이를 먹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의 성전 사업을 위해 가족과 다른 교회 회원들과 함께 몇 해에 걸쳐 여러 번 애리조나 성전으로 여행하였다. 1972년에 그녀는 멕시코시 지역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1983년에는 멕시코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가족과 선교 사업과 특별히 그녀에게 중요했던 교회의 두 가지 부름에 변함없이 헌신하였다.

피덴세아 자매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이 경전을 사랑하도록 하였으며 자신도 매일 경전을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종종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나 말일의 모든 예언자들의 생애에서 발췌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피덴세아 자매는 그 부름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손자녀들도 많이 가르쳤다.

방문 교사로서 피덴세아 자매는 40년 동안 연속하여 100퍼센트의 가정 방문을 완수하였다. 그녀는 1978년 2월에 이것에 대해 상호부조회와 선교부 지도자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녀의 봉사와 동정심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피덴세아 자매의 후손들은 그녀가 교회로 그들 가족의 다섯 세대를 이끌어 온 더욱 훌륭한 일에 관해서도 그녀를 기억한다. 피덴세아 자매와 초기 테칼코 지부의 후리안 로하스의 아들인 그녀의 첫 남편 아니세토 로하스는 여섯 자녀를 두었는데 그들 중 두 명이 생존하여 자녀와 손자녀를 두었다. 두 번째 남편인 만웰 로사스와는 세 자녀를 두었다.

피덴세아 자매는 두 남편보다 오래 살았으며 그래서 많은 손자녀와 증손자녀들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많은 후손들이 멕시코 성도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봉사하여 왔으며 또 계속해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다.

피덴세아 할머니가 가족에게 남겨 준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피덴세아 자매가 많은 세월 동안 성도들에게 보여 준 겸손한 봉사는 멕시코의 교회 회원들이 노력하고 극복하여 마침내 번성하게 된 기간이었던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유산으로 남겨졌다. *

피덴세아 가르시아 데 로하스의 증손자인 아구스틴 로하스 산토스는 멕시코 이트라파라파 스테이크 쿼우테코크 워드의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어머니로서의 기쁨

패트리아 캘리

휘 황한 하늘에서는 고아하고 조용한 해의 왕국의 천체가 빛을 발하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밑에 위치한 조그만 요새 속의 어두운 광야의 전선에는 천상의 빛나는 천체로부터 온 몇몇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가정은 해의 왕국의 본향이 갖고 있는 영광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전초 기지이지만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동이 트자 전초 기지에 사는 한 여인이 잠으로부터 깨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가정과 천상의 천체 간의 의사 소통의 물꼬를 튼다. 한 줄기 광채가 그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마음에는 고요가 가득하며, 그녀의 영혼은 평화로 충만하고, 안으로 광휘가 넘쳐 흐른다. 그빛에 압도되어, 황야의 어둠이 그녀를 자신의 요새로부터 물러나게 한다. 그녀는 천상의 거룩한 본향으로부터 오는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신성한 책들로 눈을 향한다.

아기가 운다. 그녀는 읽던 책을 덮고 아기에게로 몸을 향한다. 자녀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속으로 잠식해 온다. 기저귀, 조반, 어디론가 없어서 버려 찾아야 할 양말, 학교에 가져 가도록 준비해야 하는 도시락, “여보, 나 이러다가 늦겠소. 가족기도를 하게 서둘러 아이들을 한데 모이게 하구려.” “저 녀석은 왜 언제나 늦는담? 녀석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기다려야 한다니까.” “브렌트는 기도를 하는 동안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너 훔쳐 봤구나.” 천상의 빛 줄기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작은 전초 기지로 황야가 좀더 가까이 다가오고, 킁킁한 어둠의 손길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를 탐색하면서 문 주변으로 찾아들기 시작한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접시와 세탁물, 바구니 가득히 들어 있는 손 봐야할 옷들,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식품 단지과 깡통 및 상자들 가진 제품들은 웅웅거리며 소리를 내고, 스토브에선 음식이 조리중이며, 아이들은 뛰어놀고, 아기는 울고 있다. 틀어 놓은 텔레비전에서는 큰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우스꽝스런 상황이 연출되며, 순결은 경시당하고 있고 간음은 일상적이 되어버렸으며, 비명과 총소리 및 폭력이 난무하고, 더 큰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아름다운 옷과 값비싼 집들 및 아주 재치가 있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가 하면, 불행한 가족과 음주, 조롱, 갈, 총, 그리고 유혈 장면 등이 묘사된다. 검은 손길이 텔레비전 안테나 주변을 휘감고 있다.

자녀들이 지루해 하기 시작한다. 여인은 그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겨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고 안아 주거나 입을 맞추어 준다. 후에 자녀들이 낮잠을 자기라도 하면 그녀에게는 약간의 독서를 할 짬이 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코 ‘안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녀를 징벌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자녀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이는 부모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녀는 다른 책들로 눈을 돌림으로써 이 어둠을 몰아낸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시편 22 : 6).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8). “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사이야서 4 : 15).

“이런, 조니야, 너 벽에다 또 낙서했구나?”

가족들이 황야 여행을 중단하고 그들의 전초 기지로

돌아온다.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에게 응결되어 있는 어둠에 여전히 휩싸여 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너무 머리가 둔해서 이 수학 문제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안일은 못할것 같습니다. 숙제가 산더미 같거든요.” 부모는 이러한 어둠을 쫓아 버림으로써 자신의 가족들이 빛으로 되돌아오도록 돕는다. 그 부모의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한다 : “실망이 말이 아니다. 난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리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얼 기대하는거야, 완벽함이니?”

저녁이 되면서 땅거미가 더욱 짙게 깔린다. “어서 서둘러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돈 좀 더 주세요—필요한게 더 있어요.” 그 여인은 주변에서 암영과 어둠의 손길을 찾아 내어 이것들을 쫓아내며, 이를 막아 내기위해 문을 잠근다. 그녀는 빛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어둠에 저항하는 수비 자세를 강건하게 하며, 또 다른 생존 경쟁의 날들에 대비해 탄환을 충분히 장진해 둔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자구나.” “오늘 널 기쁘게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니.” “너와 조니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도록 내일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니?” “가족 기도할 시간이란다.” “네가 기도하겠니?” “네가 준비가 되면 안아서 침대에다 눕혀 줄게.” “물론 네 말을 들어 줄 시간이 있고말고.”

칠후 같은 밤중에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밖을 내다보고는 황야와 같은 바깥 세상은 어제의 그것과 거의 다름 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잠시 창조시 자신들이 부분적으로 향유하던 한 줄기 광휘를 보며, 그러한 영광에 압도되어 눈을 못뜬다.

이러한 일은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않다. 왜냐하면 지구의 이곳 저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작은 전초 기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참여하는 데, 이는 자녀의 출생으로 끝이 나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성전 결혼 제단에서 시작되어 영원을 두고 계속되는 해의 왕국의 가정의 창조를 뜻한다.

해의 왕국을 위한 훈련 장소

가정을 창조하고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들은 상관과 감독관, 주주들, 구매자들, 혹은 시장의 현실에 늘 제한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구라는 대상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가정에서 우리는 하늘로 웅비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정은 하늘 나라와 해의 왕국의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편 및 주님과 보조를 맞춰 창조하는 가정은 해의 왕국을 위한 훈련 장소가 된다.

요셉 스미스는 복음이 회복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의한 복천년의 통치를 위해 준비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회 정사 4 : 537 참조)

우리는 그분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단 서너 시간 정도만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으로는 구세주와 함께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 구세주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배우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준수하며 살아가야 할 율법을 배운다. 만일 우리가 무질서와 언쟁, 이기심 및 불손함으로 물들어 있는 해의 왕국의 가정을 갖고자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될 율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율법에 따라 살 수 없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해의 왕국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현재로서는 달성하기가 힘들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요한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아프고, 화장실이 차서 넘치며, 하늘이 잿빛이고, 저녁 식사에 먹을 채소를 불에서 다 태워 못쓰게 하는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우리의 목표를 해의 왕국의 가정이며 비록 모든 혼돈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반해 결집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위세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주님의 축복에 힘입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일상 생활과 좌절이라는 울무에 갇혀 있는 때가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대비해 우리는 숭고한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한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및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해의 왕국의 가정을 이룩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명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포괄적인 목표를 우리의 꿈과 일상 생활이 상호 조화를 이루기까지 세분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정립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족 및 개인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족의 경전 공부는 아침 식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며, 자녀들에게 양치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보다 계명을 준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단순한 의무 사항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귀중한 도구로 받아들인다. 또한 교회에서 배운 공과를 더 한층 철저히 연구하고 토론하여 자녀들이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 준다. 거의 매 순간마다 하는 모든 경험이 해의 왕국의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하겠다.

거룩한 가정을 유지시켜 나가려면 우선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즉 우리의 정신과 육신 및 영혼이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일상의 활동들이 제 자리를 잡는다. 세상적인 욕구에 앞서 적절한 식이 요법, 운동, 기도, 경전 공부, 성전 참여 및 재능 개발 등이 제 위치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의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를 주님께 확인받고 나면, 제반 요구 사항과 시간을 분별해 어느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알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시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채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이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해의 왕국의 가정은 크거나 작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전부만 있는 경우에서부터 열 두 명 혹은 그 이상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또한 가정이 조용할 수도 있고 북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해의 왕국의 가정에는 몇 가지 공통되는 속성들이 있다. 즉, 그들은 지상에 세워진 또 하나의 주님의 집인 성전이 갖고 있어야 할 속성과 같은 원리들을 갖고 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 : 119)

이는 우리의 각 가정을 재는 척도가 된다. 만일 각 가정들이 그러한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왕국의 전초 기지가 아니며, 이 경우 어느 부분을 개선시켜야 하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집을 건축함 · 가족을 형성함

남편과 나는 최근에 우리한테는 마치 해의 왕국의 가족이 거하는 건물과 유사한 계획을 하나 완성시켰다. 우리는 집을 지은 것이다.

우리 둘은 젊은 시절이래, 심지어는 서로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마음에 이상향의 집을 그려 왔었다. 내가 그리는 집은 사랑하는 이들과 햇빛, 따뜻함, 창의적 활동, 맛있는 것을 요리하는 냄새 등으로 가득 차고,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집이었다. 한편 남편은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평화롭고 따사로운 분위기의 보금자리를 꿈꾸어 왔는데, 그곳에서는 벽 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책장에는 책이 가득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냄새가 집안을 그윽하게 수놓는다. 우리가 처음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집을 짓는 것이 우리들이 정해 놓은 우선 순위 항목 중 수위를 차지했었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 그러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청지기 직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집과 똑같은 것을 갖도록 해 주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우리는 윈스턴 처칠의 다음과 같은 명언을 믿었다 : “먼저 우리는 건물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면 건물이 우리의 형상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최고 가는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고안한 집들을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수년을 보냈다. 마침내 집을 짓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를 찾아냈으며, 이어서 우리의 계획에 신중히 시동을 걸었다. 대지 값을 지불하고 건축 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서적과 잡지, 기타 다른 집들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처음에는 그러한 자료들을 서류 기록철에 모아 두었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 상자에 보관했다.

그런데 건축 도면을 그려 나가려 했지만, 그 도면은 우리가 마음에 꿈꾸었던 것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줄 만한 디자이너를 물색하게 되었다. 우리는 집이란 어떤 형상인가에 대해 우리와 견해를 같이 하고 기꺼이 우리가 원하는 집과 같은 종류를 설계해 주려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냈다. 사실, 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으로 인해, 그는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새로운 측면을 첨가시켜 주었다. 설계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우리는 도움과 인도를 간구했으며,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고는 했다.

몇몇 건축업자들은 우리가 예산하는 돈으로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꿈은 포기하라고 말해 주기도 했다. “정상적인 건축 설계가 짓기도 쉽고 비용도 덜 듭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하는 일 따위에는 흥미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을 짓기로 결정을 내렸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좌절을 안겨 주기도 했다. 영원이란 시간이 소요될 듯 했으나 드디어 건물의 초석이 놓이고 벽이 세워지게 되었다. 한 번에 하나씩, 집은 그 모양이 잡혀 가기 시작했다. 이따금 저지르는 실수로 인해 일을 반복해서 다시 한 적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타협을 해 우리가 이상향으로 보는 것에 못 미치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디자이너에게 다시 찾아가서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청사진을 열람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정말 열심히 일했다. 어떤 때는 벽을 세운다든지 건물 바닥에 광택을 내는 일과 같이 규모가 크고 인상적인 일들을 했던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중요한 잡일들을 더 많이 했다. 우리는 상당 부분의 일을 직접 해냈으나 가끔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기술이나 연장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고용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 우리는 살림을 꾸려 우리가 꿈에 그리던 새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것은 완벽한 집은 아니었으나 온기와 사랑하는 이들, 햇빛, 창의적 활동, 서적,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향긋한 냄새로 차고 넘치는 그런 집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정이 지난 후와 새벽 6시 이전에는 고요와 화평까지도 깃들었다.

해의 왕국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와 유사하다. 우선 우리는 현실과는 구별되는 꿈을 갖는다. 결혼하는 것은 집을 짓기에 적격인 장소를 찾는 일과 같다. 부부로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함께 해야 하며 어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릴지를 알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디자이너를 선택할 시기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가족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충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견해에는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새로운 철학과 사조가 유행을 하게 되면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분의 청사진은 경전에 포함되어 있고 개인적 계시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서 확인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청사진을 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 스스로는 생각조차 못했을 새로운 측면을 덧붙여 주실 것이다.

집을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형성하는 일은 좌절을 안겨 주거나 너무나 일상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결과가 더디 맺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진전이 있어 보이는 듯한 좋은 순간도 가끔은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일을 진척시켜 나가도록 격려 받기도 한다. 실수를 하거나 타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만일 우리의 디자이너와 맺은 계약을 계속 지켜 나가고 청사진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실수를 정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상향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도 수고를 들일 가치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 미미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거나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그들의 심신과 영에 자극을 주어 그들이 자신의 거룩한 잠재력을 성취시키도록 해줄 수가 있다.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 즉 의사, 치과 의사, 학교 선생님, 음악 및 미술 교사, 스포츠 지도자, 육아 전문가 등을 고용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일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 혹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청사진을 본 적조차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책임 사항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가족을 관리하는 일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고 또 우리 가족이 이웃에 사는 다른 가족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계획에 충실해야 한다.

건물과는 달리, 가족한테는 결코 끝이란 단어가 없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필요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는 “건축”의 다른 단계로 옮겨가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청사진에는 현대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던 그 모든 단계를 위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탄할 만하다.

집을 건축할 때는 대단히 흐뭇하다. 그렇지만 그 만족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전초 기지를 형성하면서 오는 크나큰 기쁨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따금씩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경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의 사명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지금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일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준비—평생 추구해야 할 과업

어머니의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려면 준비와 탁월함이라는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집을 짓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건축자들은 특정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건축 부지,

원하는 가정의 형태, 이용 가능한 건축 자재, 기후, 기타 장치 입주하게 될 사람들의 희망 사항 등에 관한 지식에 입각해서 설계도를 준비해야 한다. 어머니는(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장차 어머니가 될 자매들이 만일 가능한 한 모든 기사 일과 예산 책정, 실내 장식, 그리고 육아 기술을 배워 둔다면 좋을 것이다. 어머니로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 두고 생활하면서 우리의 재능을 개발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 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습득하지 못하는 여성은 성공적인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므로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주님이 설정하신 가장 중요한 집의 유형 중 하나는 질서의 집이다. 가사 기술을 통해 우리는 질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학문의 집

하지만 질서의 집을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학문의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하라고 명하고 계신다. 이러한 준비는 평생을 두고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가정에 학문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족에게 있어 우리는 그들이 물을 떠마시는 샘물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들은 시든 꽃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학문과 신앙의 저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또한 기도와 금식 및 성전 참여를 통해, 그리고 각 개인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수지에 물을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기회가 많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며, 여행을 하고,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하며, 선교 사업을 나가고, 재능을 발전시키며, 또한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본업과 취미 생활 즉, 생업 기술과 사랑을 모두 갖는다는 것에 동감한다. 여성에게 있어 가사는 최소한 본업이어야 한다(어떤 사람에게서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다). 또다른 일자리를 갖기 위해 준비를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은 바 만큼 다양한 여러 취미 활동을 해야 한다. 음악에 취미를 갖고 있는 여성은 특별히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가족 역시 축복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나는 예술, 과학, 수학, 원예, 재봉, 요리, 실내 장식, 목공예, 스포츠, 상품 구입 및 육아와 관련된 재능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생활이 좀더 풍요로워지게 기여하는 여성들을 보아 왔다. 참으로 여성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재능이 있다.

내 취미 생활에는 문학과 역사 공부가 포함되어 있다.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정말 즐겼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연구원 생활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책에서 함께 찾아보고는 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두 한데 아우러져 백과 사전과 기타 참고 서적에서 대서양의 깊이와 우주에 있는 전체 혹성의 이름 혹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의 생애에 관해 찾아보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학문의 집이 되는 것이다.

취미 생활은 가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저수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샘물도 차고 넘치게 한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잠시 동안 시 혹은 훌륭한 단편 소설을 읽는 것은 우리의 원기를 북돋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주 기도를 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좋은 역사 책을 읽는다면, 낙담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이러한 제반의 세상적인 배움은 우리의 가족한테는 하등의 의미도 없게 된다. 주님은 질서와 학문의 집 뿐 아니라 신앙과 기도 그리고 금식의 집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재능은 물론이고 간증도 발전시켜야 하며, 학교에서 배우는 책들과 더불어 경전 역시 공부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준비된 여성에 관하여 가장 이름답게 묘사된 부분은 잠언 31장 10~31절이다. 잠언의 저자는 외견상의 실례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 중 상당 부분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구절 전체가 우리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지만, 다음에 그 중 몇 가지 사례만 들어 보기로 하겠다.

“그런 자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면에서 양식을 가져오며”(14절).(이는 단순히 양식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육체적, 정서적 및 영적 음식물 모두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17절)(그녀는 의심할 나위도 없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로 인해 건강해지며, 정신 자세가 개선된다.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전 공부, 기도 및 금식 등과 같은 영적인 운동도 한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18절)(그녀는 단지 성탄절만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선물을 만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녀의 간증은, 심지어는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가족에게 밝게 빛나는 등불이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26절)(여성은 여기서 언급한 품성을 개발하는 일에 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훌륭한 자세

우리가 사는 집에는 외형의 집과(건물) 추상적 의미의 집(가정)이 있다. 전자는 단순히 기본적인 안식처만을 제공할 뿐이나, 후자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어지고 설계되어,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집은 평범하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내는 것과 훌륭한 자세로 우리의 임무에 접근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곳 지상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분은 일을 가장 손쉽고 저속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일몰,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 소나무 혹은 복사꽃 등은 내게 가장 세세한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창조하셨음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의 집은 영광스러워야 하며 우리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이를 훌륭하게 가꾸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좇는다면 우리에게 좀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한복음 10 : 10 참조) 그분은 어떤 일에서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한 축복이 온다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5 : 41 참조) 따라서 만약 어머니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사항만을 행한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여, 우리의 일은 비천한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반면 어머니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일 이상을 하고 훌륭한 예술가와 같은 자세로 이를 수행해 낸다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과 같이 다소 힘든 일에 대해 생각해 보자.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대단히 지겹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불쾌해 할 수 있다.

혹은 이를 소중한 한 사람을 돌보는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기저귀는 아기가 편안해 하고 기분 좋아하도록 꼭 바꿔 주고 마른 기저귀가 아기에게 알맞는지를 확인해 주기도 한다. 우리는 더러워진 기저귀를 손질한다.(우리가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고 해도 이것들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이 때를 아기에게 한테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로부터 심지어는 일종의 만족감마저 받게 된다.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어쨌든 이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외형의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안락한 가정을 지을 것인가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다.

복음에 따라 훌륭하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작은 전초 기지를 세상의 나머지 다른 것들과 구별되게 한다. 주님과 좀더 가까이 발맞추는 생활을 하고, 우리의 청사진(경전)을 좀더 잘 알며, 자녀들을 좀더 잘 가르치고, 좀더 멋지고 영양가있는 식사를 준비하며, 가사 기술을 습득하고, 재능을 발전시키려면, 더 한층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어머니가 될 수 있기에, 중상에 가까운 말로 들리는 극성스럽고 “최고의 몰몬 어머니(Mormon super mother)”가 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에게 노래를 가르치는가 하면, 또는 다른 어머니들은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거나 스키 타기를 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대상과 방법이 아니고, 그 자세이다. 만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세상적인 일들을 초월한다면 우리는 “제일 좋은 길”(고린도전서 12 : 31) 따르는 것이다.

훌륭한 자세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보람을 안겨다 준다. 우리는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며, 가족이 훌륭하게 되고, 하늘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미소를 보내 준다. 무엇보다도, 행복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서, 신앙, 기도, 금식, 학문 및 영광의 집인 것이다.

유머 감각

훌륭한 자세라는 말에는 우울한 표정이나 계속해서

재촉하는 태도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 생활이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유머 감각은 훌륭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값진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실수를 해서 조금 주춤할 때면 쉽게 낙담해 버린다. 우리는 유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유머와 훌륭한 자세는 상호보완적이다.



우리의 일상 과제 : 하나님의 은사

어머니로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가며 해야 하는 일은 그저 기저귀를 빨거나 구멍 난 옷을 수선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시키도록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 이 지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을테지만, 일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해의 왕국을 상속받아야 한다. 우리와 함께 가정을 구성해 나가는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이상의 존재이다. 그들은 신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 왕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실현시키도록 도와 주며, 그들이 자신의 거룩한 잠재력을 성취시키도록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는 옷을 수선하고, 설거지를 하며, 정원을 가꾸고, 바닥을 쓸며 침대를 정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사이다.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의 신성함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설거지, 기저귀 갈아주기 및 더러운 바닥 청소하기 등을 무릅쓰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우리는 바닥을

쓸고, 정원의 잡초를 뽑아 주며, 아기를 돌보고, 일을 배우고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킨다.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채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도 하얀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훌륭한 생각을 함으로써 기록해칠 수는 없다. 이 지구와 그곳에 존재하는 삼라 만상은 하나의 거대한 교실로 기능하게끔 고안되어졌다. 우리가 개발해야 할 거룩한 것들은 바로 이곳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해의 왕국의 환경, 즉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기 위해 지상의 도구들을 활용할 때,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발전된다. 것처럼 깨끗한 바닥과 정돈된 침대, 그리고 말끔한 찬장은 이러한 해의 왕국의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이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두 살

때는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두도록 하고, 세 살이 되면 자신의 침대는 스스로 정돈하도록 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관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의 해의 왕국의 집은 질서 정연하고 깨끗한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학문의 집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이 경전 공부를 하고 신앙과 기도 및 금식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가족 기도를 하고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며, 가정의 밤을 갖고 또한 가족이 함께 성전에 참여하는 일이 어떻게 해의 왕국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알게 된다. 나아가서 만일 우리의 가정을 영광의 집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우리의 모든 언동이 정중하게 이뤄지게 한다면, 우리는 지상의 세속적인 장신구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우리의 작은 전초 기지가 하늘의 별들 가운데 자리잡도록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흥미롭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며, 재미를 주기도 한다. 이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요한다.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편은 물론 주님과 더불어 동반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전초 기지에서 우리 모두 한 줄기 광휘를 창조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



THE MUSEUM OF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국경을 초월한 자매애



나부 성전의 건축이 진행되면서 나부의 자매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바치라는 요청을 받았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자매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협동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해 자매들로 구성되는 단체를 위한 규약을 작성했는데, 요셉 스미스는 이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좀더 발전된 단체를 조직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권 조직을 본떠 자매들을 조직화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매들 조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하게 조직될 수 없었습니다.”(상호부조회지, 1919년 3월 129쪽).

1842년 3월 17일,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The Female Relief Society of Navoo)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엠마 스미스가 회장으로



부름받았고, 엘리자 알 스노우는 서기로 지명되었다. 20명의 자매와 3명의 형제가 창립 모임에 참석했다.

그후로 상호부조회는 128개의 국가와 지역에 178만이 넘는 회원을 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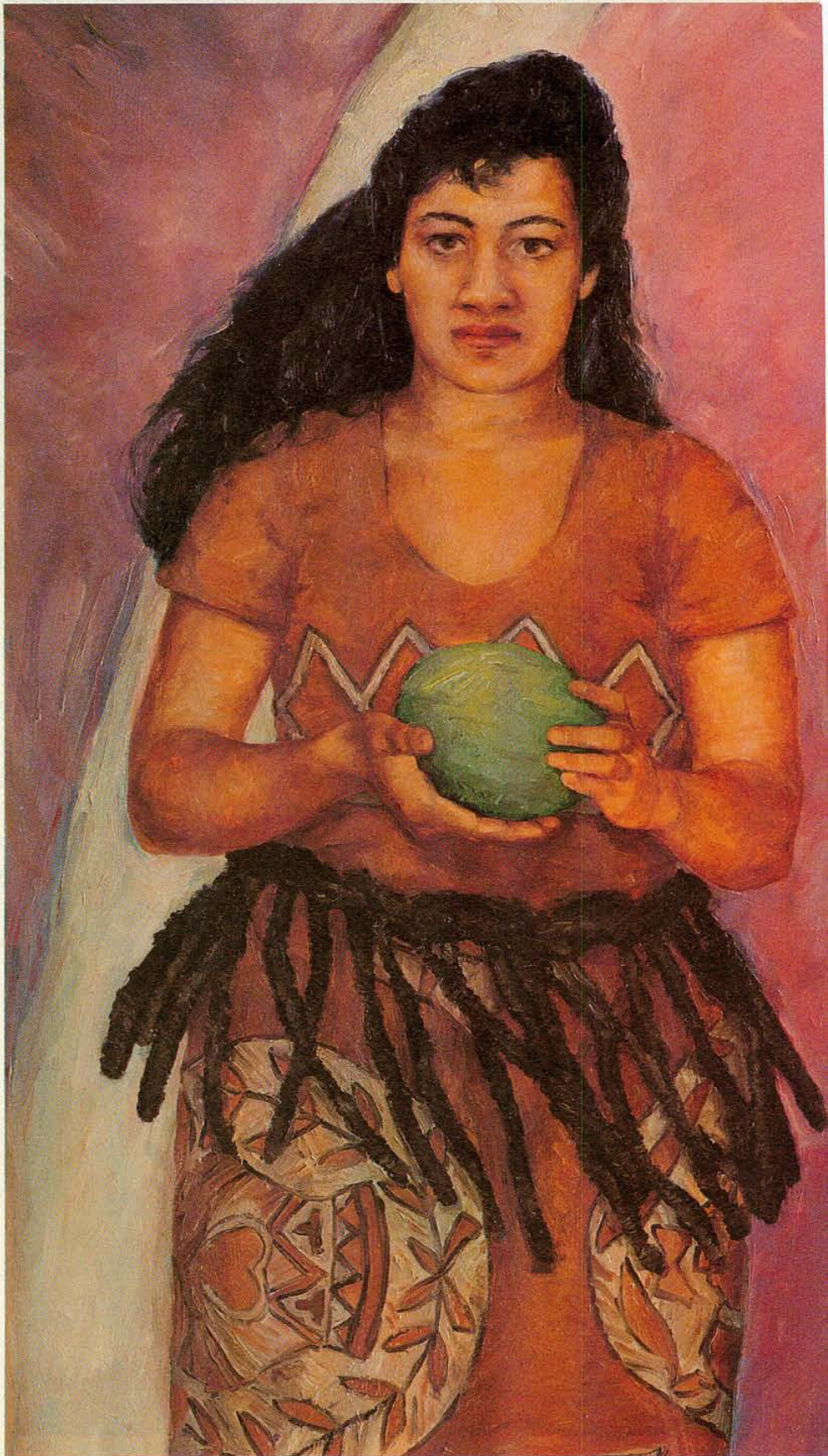
국제적 조직이 되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자매들 사이에서는 물론 가족 및 지역 사회 가운데서 그 재능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같이 일한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좀더 가까이 나아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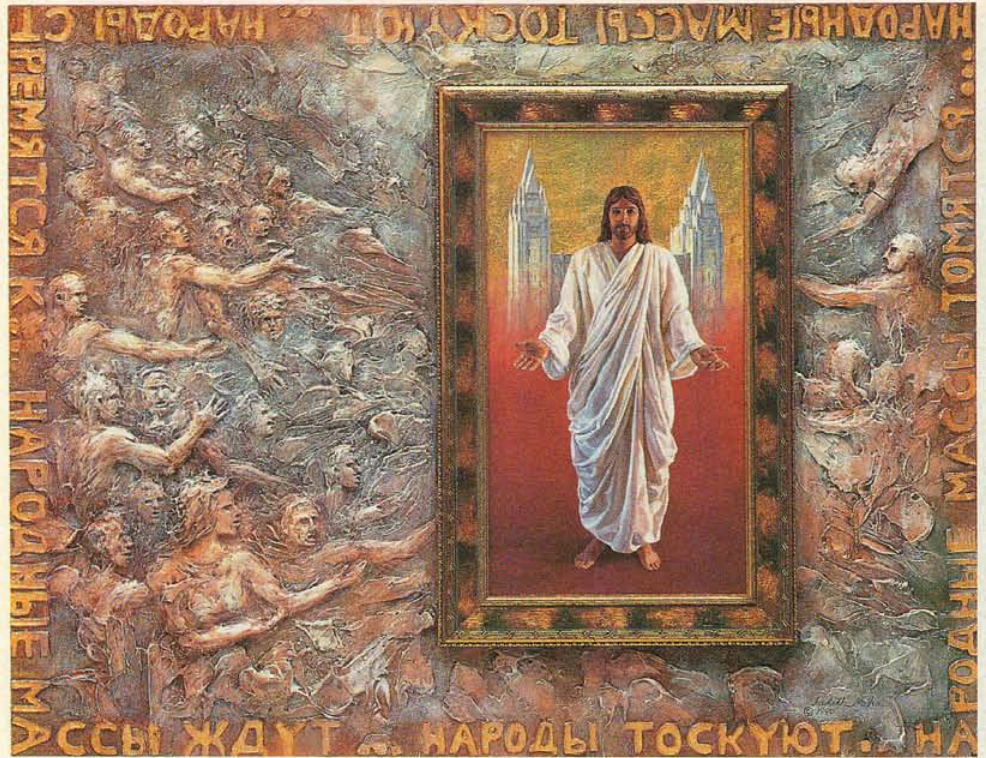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도, 상호부조회가 강조하는 원리는 한결같다. 즉, 봉사하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음 쪽에 서술되어 있다.

위 : 나부 성전, 헬가 슈테펠 작품, 독일 오스트프리란트, 1986년, 양모와 합성 섬유로 된 이 자수품은 스티븐 베어드의 1967년도 유화에 기초를 둔 것이다.
 왼쪽 : 나부 상호부조회의 시작, 나딘 바턴(1921-1989), 유타 프로보, 캔버스에 그린 유화, 1986년. 엠마 스미스가 예언자 요셉의 지시하에 첫 상호부조회 모임을 사회하고 있다.

한 개인으로서
축복받았고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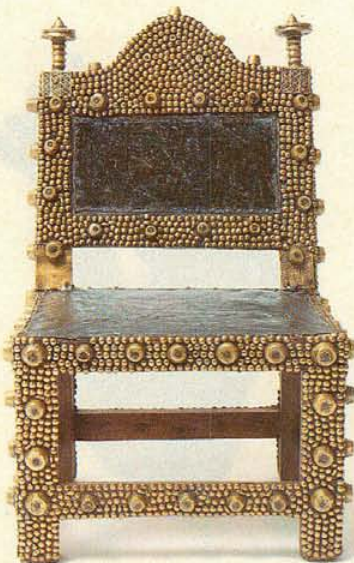
풍성한 결실을 맺는 씨앗
(창세기 49:22). 로우리
울슨 쉬네벨른 작품,
캘리포니아, 알타 로마.
캔버스 위의 유화, 1990.
모든 여성은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유산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녀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자기만의 재능을 갖고 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요셉의
가문인 폴리네시아인들을
대표하는 통가 여성이다.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과일을
손에 들고 있다.





사랑의 성품을 키우며 사랑을 실천함

열망하는 대중들 (마태복음 11:28), 쥬디스 메어 작품,
 유타, 웨스트 벨리 시티 캔버스 위의 유화 물감, 금박, 나무, 1990.
 우리의 가족이나 지역 사회 혹은 우리 나라 및 기타 나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찾아 어둠 속을 더듬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자매애의 표상인 상호부조회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여성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
 브리감 영 대학교 내에 가정 대학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바 있는
 버지니아 커틀러는, 1969년에, 아프리카의 가나에 가정 관리학 과정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로 아산티 부족이 주는 추장의
 의자를 (왼쪽) 수여받았다.
 이 의자는 아산티 부족이 수여하는 것으로는 최고의 영예로운 것이다.
 (현재는 교회 역사 예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가족을 강화함

상속 (사도행전 20 : 32), 젠 레이턴 런드버그 클라크 작품, 유타, 프로보.

캔버스에 그린 유화, 1990. 육체적 특성과 같은 가족 전통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고 강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림은 화려한 색채로 암영은 전혀 없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교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진리의 빛을 상징한다.

자녀들은 가족에게 축복과 위안을 가져다 준다.

오른쪽에는 온 세계의 다양한 아기 유모차가 보인다.

위에서 아래로 : 몽(동남아시아인들의 것),

우테(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것), 마얀(멕시코인들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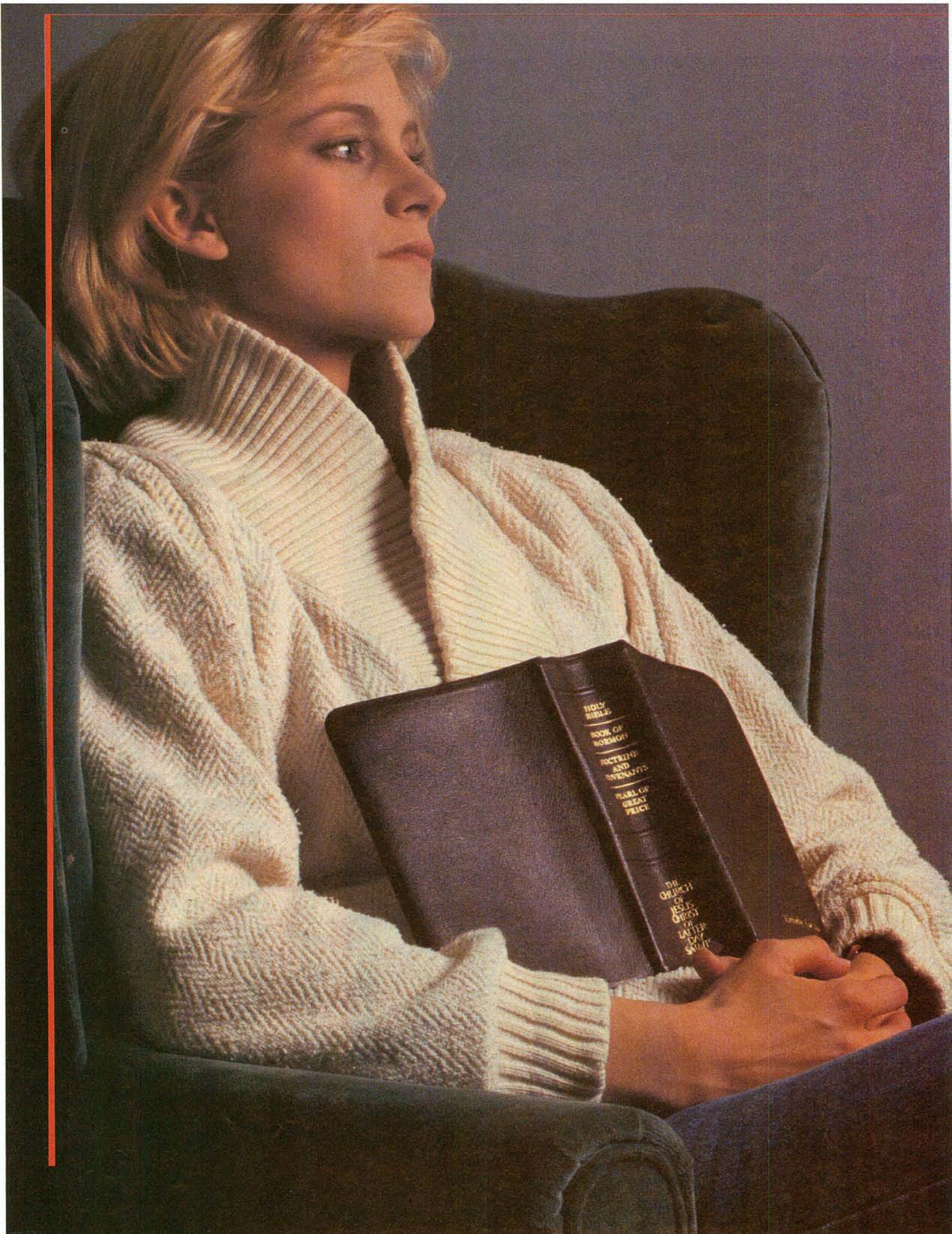




단합된 자매애를 향유함

무덤 가의 세 여인,
미네르바

타처트(1888~1976) 작품,
와이오밍 코크빌, 캔버스에
그린 유화, 1947년.
그리스도의 무덤에 모인 세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천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다.(마가복음 16:
1~8 참조). 이 자매들은 다
함께 주님을 섬겼고, 그의
부활하심을 다 함께
기뻐했다. 오늘날,
상호부조화는 자매들이
주님을 경배할 때,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서 오는
자매애의 축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새롭게 영적인 힘을 보완함

말일성도 여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셜린 미크 산더즈

유 타주 린든에 사는 필리스 피터슨 자매는 친구에게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온종일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한 피터슨 자매의 말이 저를 번개같이 때렸습니다.

그 자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때, 이미 인생에서 진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슨 자매는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하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회상했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들의 가정에서 분쟁의 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몬경”,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참조)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어 왔었지만, 피터슨 자매는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이 못 되어 아이들이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 자신이 평온을 찾았으며 아이들이 보다 더 잘 설득시키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라고 피터슨 자매는 말합니다.

피터슨 자매와 같이 전세계의 말일성도 여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힘이 고조되어 있을 때 그들의 생활이 더욱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성들이 많은 일로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 영적인 힘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우선으로 삼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십시오.”라고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에 사는 자넷 이 버크 자매는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에 각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망, 우울, 노여움, 분노, 고독, 자기 연민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영적인 굶주림의 표시입니다.”

매릴랜드주 코즈빌의 케런 프리먼 자매는 다음과 같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 생활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는 것은 다른 활동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정원을 가꾼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일과 함께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일을 넣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주변을 정리하고 그들이 바라는 목표를 허황되지 않게 좀더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을 때, 제가 결승선까지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되도록 천천히, 되도록 길게, 되도록 적게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주 샌티에 사는 토니 토마스 자매는 말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행위의 품격을 높임으로써 이 원리를 제 인생에 적용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경전을 조금씩 밖에 읽지 못 하지만 경전 구절을 더욱 깊이 상고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과외 활동을 시키지 못 하지만 그러한 작은 일에 집중하게 하고 그러한 것에서 뛰어나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저의 세상적인 욕구를 조절해서 그것들이 저의 영성에 필요한 것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계획한다

“우리는 생활을 계획할 때 음악이나 학습 활동, 식사, 모임과 같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은 저를 위하여 마련된 시간입니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저는 바빠서 가 봐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한 활동은 사양하기 쉽습니다.”라고 유타주 로건의 루이스 브라운 자매는 말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리조나주 길버트에 사는 메릴리 피 갤럭시 자매는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계획합니다. 몬타나주 미즐라의 안네트 에스 힐 자매는 일 주일에 한 번씩 세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이 어떤 일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또 어떤 일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녀에게 한층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그 자매는 알았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는 것 외에 그 자매는 그 시간에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산보를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가족 역사를 기록하거나 또는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영의 근원지로 돌아감

“영적인 거듭남은 영의 근원지에서 가장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기도입니다.”라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자넷 램머스 자매는 말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느 날은 인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또 어느 날은 신체적인 강건함이 또 어느 날에는 아마도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라고 유타주 샌디의 제니퍼 샌트 자매는 반문합니다. 샌트 자매는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인도를 받기 위하여 매일 밤과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샌트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즉시 대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용히 자녀들을 불러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를 간직하는 것 역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하루 스물 네 시간동안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시간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할 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주 덴빌에 사는 캐롤 터틀 자매는 회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쪼개어 쓸 수 있음을 아셨으며 아마도 그분은 제 인생의 활기찬 일들의 한 가운데에서 저를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배 안에서 베드로를 가르치셨으며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함께 걸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빨래를 개면서, 당근 껍질을 벗기면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우는 아기를 어르거나 아기의 고통을 달랠 때 저를 도우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즐김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신디미 같이 쌓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라고 홀로 된 여섯 자녀의 어머니인 캘리포니아주, 엘크 그로브에 사는 에버 로렌트 자매는 말합니다.

“제가 구하였던 것은 저에게 도움이 될 또 다른 두 손, 튼튼한 허리, 인식력 있는 마음과 같은 실질적인 신체상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주신 것은 매일 몰몬경을 읽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책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의 생각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난히도 힘들고 지친 날이 저물어 갈 때, 조지아주 캔톤의 수잔 와이먼 자매는, 잠시도 가만이 있지 못하는 세 살짜리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어르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죽박죽 혼란된 가운데에서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세 살박이 아기가 조리대에서 달걀 꾸러미를 밀어 떨어뜨려 새로 걸레질한 마룻바닥에 온통 깨진 달걀로 뒤범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와이먼 자매는 평상시와 같으면 화를 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과 자책을 알아차렸으며, 아들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와이먼 자매는 서투르게 도와 주려는 아들과 함께 평온한 마음으로 깨끗이 치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저의 인내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경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성령이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그때를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쁜 여성들이 경전을 공부합니까? 오래근주 코발리스의 로리 알 김스 자매는 매일 경전을 읽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날은 한 장 혹은 그 이상을 읽었고 또 어떤 날은 단지 한 두 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을 때 그 자매는 영성과 지식을 더욱 갈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커다란 욕망이 복음을 공부할 시간을 “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여성은 매일 몇 분 동안 경전을 읽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0분이나 15분 간 잠을 덜 자는 것이 저의 육신의 건강에 별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저의 영적인 복리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리서 뉴먼 자매는 말합니다. “10분이나 15분이 저를 좀더 유쾌하고 인내심 있는 아내와 어머니로 만들어 줍니다.

주님의 도구가 됨

“저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교회 및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 예기치 않게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위싱턴 주 타코마의 제니버 스미스 자매는 말합니다. 스미스 자매는 암에 걸린 자매의 방문 교사로 지명받았을 때 이들에 한 번씩 육 개월 동안 병원에서 그 자매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그 자매를 알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이제야 제가 그 자매를 참으로 알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 주고, 머리를 빗겨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고문당하는 그녀의 몸을 씻기면서 그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주었을 때 제 잔이 가득 차 넘쳤습니다.”라고

말일성도 여성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댈으로써, 저는 보통 일상 생활에서 오는 시련은 물론 이따금씩 오는 보다 더 어려운 시련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회상했습니다.

캐나다, 노바 스코타, 다투머스에 사는 자넷 머크레넨 자매는 다음과 같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웃과 와드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근심을 나누고 진실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좀더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었으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것과 같은 사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름에 최선을 다함

“방문 교육은 저의 영성을 높여 주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제 자신이 성장함으로써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방문 교육 메시지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제가 방문하는 여성들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한 달 동안 매일 그들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데비 아즈 번 자매는 말합니다. 교회 부름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에게 의지함을 배움으로써 영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유타주 아메리칸 포크에 사는 초등학교 회장인 레이첼 머독 자매는 그녀가 초등학교 역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추천할 필요가 있을 때 그저 다른 조직의 부름으로부터 최근에 해임된 사람이나 와드로 방금 이사 온 사람의 이름을 자주 제시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름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하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선택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영의 확인을 받기 위한 기회를 제 자신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머독 자매는 말합니다.

“초등학교 역원으로 일하는 것이 저에게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주 지노의 조앤 더블류 캐츠 자매는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진지한 소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의 공과를 읽기 시작했으며 때때로 가정의 밤 시간에 저의 가족에게 초등학교 공과를 실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가르칠 때, 저의 간증도 자라났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연마함

“저는 성숙해감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 사이에 강한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애리조나주 길버트의 매리 엘런 플레이크 자매는 말합니다. “만약 육체가 말을 잘 듣지 못한다면 육체를 지배하는 영혼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유타주 니브리에 사는 케이 샬버선 자매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두통의 치료법으로 운동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을 때 시간도 돈도 없는 그녀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낡은 페달 운동기를 얻어서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지금은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변하는 계절로 인하여 영적으로 고양되며 또한 모든 것을 저의 시야에서 뒤로 물러가게 해주는 듯한 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로 인하여 겸손해집니다.”라고 샬버선 자매는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걷는 운동으로 체중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걷는 운동으로 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낙담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같이 하는 영적인 일들을 인식함

“저는 매일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 볼수록, 저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매일 겪는 일상 생활의 경험들에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영국, 사우샘튼의 메리언 앨런 자매는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주는 양식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공급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말일성도 여성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냄으로써, 저는 보통 일상 생활에서 오는 시련은 물론 이따금씩 오는 보다 더 어려운 시련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라고 오레곤주 스프링필드의 바버러 스타웰 자매는 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몇 주 전 저는 무언가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고, 또 울며
세 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고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조금이라도 쉽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가족들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오레곤주, 그레샘의 저닌 헨슨 자매는 말합니다. “모든 가족이 집안 일을 돕는다면, 저는 설거지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영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바람직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셰릴리 웰터와 그녀의 남편 같은 매일 밤 함께 걸으며 그들의 느낌과 의견을 서로 나눕니다. 또 다른 부부들은 경전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합니다.

또한 자매들은 서로 성장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컷주, 체셔의 메릴니 웹스터 자매와 그녀의 네 친구는 함께 몰몬경을 공부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매주 일곱 장씩 읽고 수요일에 만나 토론을 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 모닝 선 와드의 자매들은 돌아가면서 아기를 돌보며 순서대로 돌아가며 낮동안 외출할 시간을 갖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다른 자매에게 자신을 충분히 다시 채울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음을 알므로써 영적인 사기를 북돋울 수 있습니다.”라고 와드 회원인 태미 엘 브래들리 자매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자매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루스 라비츠 자매는 말합니다. “몇 주 전, 저는 무언인가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방문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고 또 울며 세 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고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른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나 느낌, 또는 당면한 문제를 홀로 간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상호부조회의 설립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1842년 3월 17일,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날에 20명의
여성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모임을
가졌으며, 곧 그는 이 모임을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난, 정선된
유덕하고 거룩한 선택된 단체”라고
불렀습니다.(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기록, 1842년 3월 30일)

그후, 몇 달 동안 여성들은 함께 모여
자주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서 먹이고
입히고 거주할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보좌였던
엘리자베스 휘트니 자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키고
있는” 자매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1842년 5월 26일 기록)
그리고 후에 재정 서기인 엘리버 에이
홈즈 자매가 1년 동안의 기부금을
보고하면서 “많은 선한 일들이
행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1843년 6월 16일 기록)

또한 자매들은 영적으로 서로를
강화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
자매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왕국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기뻐했습니다.”(1843년 6월 15일
기록)라고 말했습니다.

나부의 자매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원리는 무엇인가?

영원한 원리들

이달은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표어가 우리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상호부조회의 초기
회원들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잠언 31 : 26) “현숙한 여성”과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태도로 그러한 영원한
원리들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여성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의로움을 반영하고 그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나타낼 때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영원한 원리들로 인하여
다른 선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의로운 여성들의 역할”
24단락,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참조)

1982년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체코슬로바키아, 브르노의 올라
코바로바가 바로 그런 여성입니다.
올가는 물론경을 소개받았을 때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니파이서 2 : 25)는
구절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의 백성들이 삶에

대한 윤리와 도덕상의 동기를
재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올가는 그녀가 가르치던 대학의 주임
교수에게 그녀의 종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었는지라도 수업
시간과 여름 캠프에서 감사와 책임과
기쁨에 관한 이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올가는 조국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격려의 메시지를 외치는 대변인이
되었습니다.(오늘의 브리검 영 대학교,
1991년 3월호 30~34쪽 참조)

우리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지혜와 친절과 사랑의 원리를 나눌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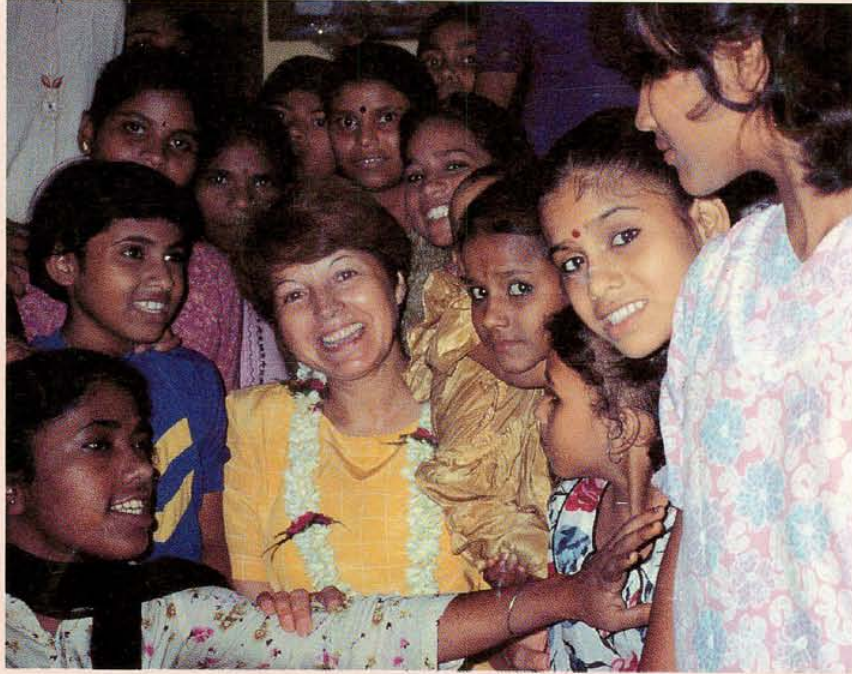
상호부조회의 사업을 계속함

나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세운
본보기를 따라서 현대의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영원한 원리들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지혜와 친절과 사랑을
나누고 그후 지역 사회로 펼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많이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범위
또한 넓습니다.

전세계의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끊임없이 궁핍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세상적인
필요 사항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보살핍니다. 우리는 매주
공과와 음악을 통하여 서로에게 덕성을
복돋아 줍니다. 우리는 말과 친절한
행위로 우리의 간증을 나타내며, 함께
봉사합니다. 일백 오십년 동안, 우리는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엘레인 엘 잭 자매(중앙)와 보좌들, 지에고 엔 오까자끼 자매(왼쪽, 제1보좌)와



이 번 호는 올해로 150주년을 맞은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여성상 강조에 역점을 두고 상호부조회 회원 몇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의 세실 퍼루 자매는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8쪽의 “세실 퍼루 : 인도에서의 사랑과 우정” 참조.